

CSLV

CASA LIVING

까사리빙

GLOBAL HOME

프로방스 농가의 재발견

ARCHITECTURE

세심하게 설계된 일상 시퀀스

SPOT

감도 높은 두 개의 소품

SPECIAL

공간에 관한 사유와 기록
MY PLACE



©Daniel Schäfer



©SWNA

HOME 122

온 가족을 위한 현대의 공간

CONVENIENCE 126

스마트 뷰티 큐레이션

CULTURE 130

당신을 사로잡을 오늘의 공연

EXHIBITION 134또 한 번, 사적인 취향 엿보기
〈취향가옥2〉**HOT PLACE 106**트렌디한 스타일링 주소
스틀레오**FOCUS ON 108**내면의 신선도를 체크하는 여정
SWNA 이석우 디자이너**SEASON IDEA 112**

피로를 녹이는 홈 스파

ZOOM IN 116욕실의 감각을 바꾸는 1%의 차이
레미제이**SPOT 118**

감도 높은 두 개의 쇼룸



©이스튜디오

스틀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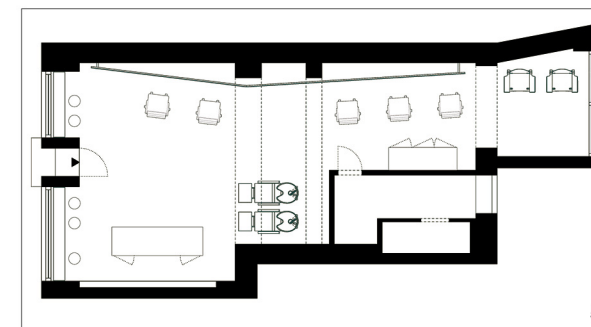
STLEO

베를린이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의 충위를 품고 있듯, 도심에 등장한 이 바버숍 역시 다층적인 레이어를 갖고 있다. 다국적의 스타일링 전문가들이 모인 작은 공간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도시의 축소판 그 자체다.

에디터 유승주
포토그래퍼 다니엘 쇼퍼(Daniel Schäfer)



분단의 상흔을 간직한 역사적인 베를린의 미테(Mitte) 지구는 이제 트렌디한 상점, 바, 레스토랑이 즐비한 활기 넘치는 풍경을 자랑한다. 그 중심에 있는 브루넨슈트라세(Brunnenstraße) 거리에 스텔레오 바버숍이 지난해 여름 문을 열었다. 이곳은 지역의 건축사무소 바텍 아키텍텐(Batek Architekten)을 이끄는 파트릭 바텍(Patrick Batek)이 설계했는데, ‘진정한 럭셔리라는 사려 깊은 단순함에서 나온다’라는 건축가의 신조를 충실히 담아 55㎡ 규모의 단조로운 평면 속 심플함의 미학을 구현했다. 블랙 앤 화이트의 강렬한 대조 사이로, 상호는 굵고 섬세한 획과 각진 형태의 고딕 양식 서체를 사용해, 마치 중세 시대 길드 간판처럼 고전적이면서도 임팩트 있는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는 도시의 맥락과 이발소가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라는 가치를 외부에도 명확히 전달하며,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 이러한 첫인상은 실내로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이전에는 카페 건물이었어요.” 건축가는 드라마틱한 개조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소재와 구조를 수용하며 최소한으로만 개입했다고 전한다. 중요하고 변치 않는 것에 집중하려는 본질주의 철학을 토대로, 불필요한 요소들을 지양하는 동시에 건물이 지닌 본래의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며, 나아가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해냈다. 특히 깨끗한 하얀 벽 너머로 낡은 벽돌 벽면을 노출시키며,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풍부한 질감의 배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일조한다. 파트릭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화이트 석고로 통일해 좁은 공간이 넓어 보이도록 의도했으며, 벽면의 일부는 새하얀 유광의 정사각형 타일로 마감해 청결하고 정돈된 느낌을 심어준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본연의 마감재들을 남겨둬으로써 자칫 차갑게 비칠 법한 공간의 온도를 중화시켰다.



- 1 시간의 흔적이 깃든 붉은 벽돌과 현대적인 아연 소재 카운터가 독특한 촉각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 2 세련된 미니멀리즘과 실용주의가 결합된 남성 그루밍 살롱의 내부.
- 3 잠시의 여유를 즐기며 스타일링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공간.
- 4 블랙과 화이트의 대비가 돋보이는 샴푸 스테이션.
- 5 55㎡ 규모의 단조로운 평면 속 효율적인 동선과 공간 분할을 보여준다.



또 다른 디테일은 공간을 가로지르는 대형 거울이다. 이 같은 연출은 시각적 확장성과 연속성을 부여하면서 더불어 옆자리에 나란히 앉은 고객들 간의 미묘한 유대감을 돋우고, 외부 모습까지도 은유적으로 반영하는 영리한 장치다. 여기에 형광등과 블랙의 스틸 조명명을 설치해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무드를 부각시킨다. 한편 카운터는 아연판으로 제작해 공간의 하이라이트 역할을 한다. “아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아름다운 패티너(Patina)를 형성하죠. 공기, 습기, 그리고 사용자의 손길에 반응해 생기는 소위 살아있는 변화는 빈티지한 맛을 선사하게 된다”라고 소재 선택의 이유를 설명한다. 이발소 안, 이 예상치 못한 카페는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 스폿으로, 헤어스타일을 완성하고 금세 떠나는 곳 이상의 경험을 제공한다. 신규 디자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처럼 이곳의 헤어 스타일리스트도 아일랜드, 영국, 폴란드, 호주, 미국 등 국적과 배경이 모두 다양하다. 장벽으로 나뉘었던 단절된 과거를 뒤로하고, 국경을 초월한 재능과 문화의 만남이 새로운 창의력을 불어넣듯, 남성 그루밍 살롱은 신 베를린 정신을 유연하게 빛어낸다.

www.stleonard.de